

【논 문】

1910년대 북간도 조선인학교의 연합운동회

정 예 지*

┃ 차 례 ┃

1. 머리말
2. 연합운동회를 준비한 사람들
3. 연합운동회의 기능
4. 중국의 후원과 일본의 대응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10년대 북간도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조선인학교 연합운동회를 분석하여 당시 북간도 조선인사회를 둘러싼 정치적 조건들과 그에 따른 조선인사회의 지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북간도의 종교지도자들은 간민교육회와 간민회를 설립하여 조선인의 교육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조선인 자치권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지방정부와 강한 유대관계를 맺어나갔다. 중국 지방정부는 조선인들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선인에 대한 통치를 강화해 나가면서 귀화를 권유했는데, 간민회교육회와 간민회 세력은 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치권 확대를 꾀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강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자치운동을 추진했던 세력을 ‘민족적 자치주의’세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910년대 북간도 조선인학교 연합운동회는 민족적 자치주의세력의 주도

* 이 논문은 서울장학재단 하이서울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하에 1912년~1918년까지 열렸다. 연합운동을 통하여 조선인들은 공동체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공동체적 정체성은 태극기, 애국가 등 강렬한 민족주의적 코드를 통하여 공유되었다. 또한 연합운동회는 많은 조선인이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활발한 인적교류의 장이 되었다.

연합운동회는 중국 지방정부와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민족적 자치주의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므로 중국 지방정부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으로서는 민족적 자치주의자들이 운동을 통하여 조선인 공동체를 단결시키고 그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이 통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영사관은 연합운동을 매우 우려하였다. 연합운동회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은 곧 반일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운동회의 주최세력과 중국과의 연대가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재간도 일본영사관은 연합운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족주의적 언사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마다 중국 지방정부에 외교적 항의를 했다.

그러나 1920년대 일본의 ‘간도출병’으로 일본세력이 극적으로 확장되면서 민족적 자치주의자들의 활동은 기존과 같이 유지될 수 없었다. 북간도 조선인학교 연합운동회도 1910년대처럼 열릴 수 없게 되었다.

주제어 : 운동회, 간민교육회, 간민회, 김약연, 민족적 자치주의

1. 머리말

압록과 두만. 한국, 중국, 러시아의 국경을 흐르는 이 두 강은 세 국가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단절적인 단어로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로 강변에서 바라보는 그 대안(對岸)은 특별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다. 강폭이 좁은 곳에서는 건너편과 목소리를 주고 받으며 인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탓에 조선 사람들은 일찍부터 ‘봉금정책(封禁政策)’으로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건너편 땅으로 가 농사를 짓곤 했다. 그 중에서도 두만강 건너 북간도 지역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함경도 사람들을 선두로 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가 자리를 잡았다. 청조가 봉금을 풀고 사람들을 이주시킨 후에도 북간도에는 중국 사람보다 조선 사람이 더 많이 살

었다. 1910년대 북간도에는 거주민의 70%이상이 조선인이었다.

흔히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일부분이었던 북간도는 그런 점에서 특수한 공간이었다. 통치권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고, 영토도 중국의 영토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중국 국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 후에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므로 북간도의 조선인들을 보호할 의무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910년대 북간도의 조선인들은 일본의 국적과 일본의 보호를 원치 않았다. 조선인들은 절대 다수의 인구를 기반으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기를 원했다. 북간도의 정세는 국가라는 틀을 가지고 합법적 통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가를 상실했지만 지역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조선인들의 역학관계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간도의 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독립운동사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이후 국내에서는 적극적인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웠던 반면, 간도는 조선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많은 조선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기지로서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 하에서 무장투쟁이나 민족교육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¹⁾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독립을 향한 민족의 부단한 투쟁을 재현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던 만큼 한국사의 일부로서만 의미를 부여했을 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간도 조선인사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북간도 조선인사회의 연속성과 그 특질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조선족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을 구성하는 56개 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으로

1) 윤병석, 1990, 『獨立軍史：鳳梧洞靑山里의 獨立戰爭』, 지식산업사 ; 박환, 1991, 『만주한인 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 박주신, 2000,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 서중석, 2001, 『신홍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 윤병석, 2003,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 채영국, 2006, 『연변지역 독립운동기지외 1920년대 한인사회의 변천』,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 이명화, 2008, 『항일독립운동사상에서의 명동학교의 위상』, 『북간도지역 한인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서 중국근현대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발견하고 의미 부여하고자하였다. 해방 전 간도에서 조선인들의 항일투쟁은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해하는 한편,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대표되는 조선족사회의 형성과 그 특질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중국이라는 국가의 역사로 조선족의 역사를 위치시켰기 때문에 경계인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조선족의 삶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경향의 연구 모두 특정한 국가의 역사로서만 간도지역 조선인들의 삶을 그려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간도의 조선인사회는 특정한 한 국가의 역사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민을 통하여 어느 한 사회의 소수자 집단이 형성되었을 때 그들은 모국과 이민국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모국의 동포들과도, 이민국의 다수자들과도 다른 입장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국가라는 틀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도 조선인은 모국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는 한층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침략세력으로서의 일본과 그에 대한 부단한 저항을 그려내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시기를 막론하고 일본 세력을 막강한 억압자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북간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의 크기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를 드러내고 적절히 고려하여야 북간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한 걸음으로써, 1910년대 북간도 조선인사회와 그들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간도의 거주민인 조선인들, 국적이 불분명한 거주민을 통치해야 하는 중국 지방정부, 조선인을 통해 간

2) 연변민족교육연구소교육사연구실, 1989, 『연변조선족 교육사』, 논장; 김춘선, 1998, 「‘북간도’지역 한인사회의 형성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춘일, 2008, 「중국 조선족 민족과정과 간민회」, 『북간도 지역 한인 민족운동: 명동학교 100주년 기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중국에서의 조선족 역사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는 김태국, 1996, 「중국에서의 조선족 역사연구」, 『동북아연구』vol.2 no.1.

도로 진출하려는 일본. 북간도는 이들 세 세력이 실질적 지배력을 획득하고자 경쟁하고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이런 교차를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1910년대 수차례 열렸던 조선인학교들의 연합운동회이다.

근대국가에서 체육행사는 국가의 통치술로 활용되었으며 공동체를 상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³⁾ 이 논문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운동회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1910년대 북간도 조선인학교 연합운동회라는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합운동회는 1912, 1913, 1914, 1917, 1918년에 성대하게 열렸다. 운동회에 참가한 학생은 평균적으로 30여 개 학교의 1000여 명 가량, 구경꾼도 적게는 3,000여 명에서 많게는 15,000여 명이나 모여들었다. 이러한 대규모 연합운동회가 1910년대에만 5차례 열렸고, 1920년대에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연합운동회를 주도한 세력을 ‘민족적 자치주의’ 세력이라고 보고 그들이 운동회를 통하여 얻어내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 연합운동회를 둘러싼 중·일의 반응을 살펴 볼 것이다.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910년대 북간도 조선인사회를 둘러싼 정치적 조건들과 그에 따른 조선인사회의 지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요시미 순야, 2007, 『근대의 신체 운동회』, 논형 ; 이동진, 2004, 『민족과 국민 사이 : 1940년의 체육행사에서 나타나는 만주국, 조선인, 공동체』, 『만주연구』1 ; 이동진, 2006, 『표상으로서의 스포츠 : 『朝滿對抗競技大會』를 사례로』, 『만주연구』4.

4)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연합운동회의 주최세력들은 북간도에서 조선인 자치권 확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자치주의자’라고 명명하면 1920년대 조선의 자치론자들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 1910년대 북간도의 자치주의자들은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민족적 결집을 통하여 자치권을 확대해 나가고자 했다. 공간을 북간도로 한정하더라도 이후 시기동안 나타나는 자치주의의 성격을 구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므로 1910년대의 자치주의자들을 ‘민족적 자치주의’ 세력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세력의 연속과 변화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2. 연합운동회를 준비한 사람들

연합운동회를 준비한 사람들은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의 독립을 지향했으며 반일적이었다. 한편으로 토지나 재산, 교육 문제 등 간도에서 조선인의 생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 성격이 중국인과 다른” 조선인들만의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민족적 자치주의’세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연합운동회의 참여 학교와 각 학교 관계자들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13년 연합운동회의 발기인은 이동춘(李同春)이었다.⁵⁾ 이동춘은 함북 회령 출신으로 한말에 원세개(袁世凱)가 서울에 주재할 때 통역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고종의 신임을 받아 정치활동을 펴다가 일본의 주목을 받아 망명하여 간도로 갔다. 이후 중국으로 귀화하고 연길도윤(延吉道尹) 공서외교부(公署外交部)에 통역으로 종사하였다.⁶⁾ 또한 이동춘은 1910년 설립된 간민교육회의 중심인물이기도 했다.

1913년 여자부 우승을 했던 명동여학교는 명동학교 내에 설립된 여학생 부이다. 이동휘(李東輝)의 둘째딸인 이의순이 명동여학교의 교사로 있었다. 명동학교는 1899년 함경도 회령 출신의 규암 김약연(金躍淵)이 가솔들을 이끌고 집단으로 이주한 후 서전서숙의 정신을 이어받아 1908년 명동서숙을 연 것에서 출발하였다. 신민회에서 북간도교육단(단장 정재면)을 파견해 온 이후 김약연은 그들과 합심하여 명동학교를 더욱 발전시켰다. 북간도교육단은 이동녕과 이동휘의 권유로 정재면(鄭載冕)이 조직한 것으로, 임원은 기독교 전도사 배상희, 평양 제중병원 의사 한봉의, 유기연 등이었고 고문은 이동녕과 이동휘가 맡았다. 정재면은 서울 상동교회 부설 기독교청년학원을 졸업하고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간도로 온 후 명동학교의 교무주임

5) 간도총영사대리(界典三吉)→외무대신(牧野伸顯), 1913.8.20, 『政機密』第33號 排日鮮人學校聯合運動會=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 2~3쪽.

6) 國家報勳處, 1987,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第4卷, 792~793쪽.

으로 취임하여 국내로부터 박태항, 장지영, 김홍일 등을 초빙하고, 명동학교를 기독교학교로 개편했다. 명동학교라는 명칭도 1909년 4월자로 개칭되었다.⁷⁾ 김약연은 원래 한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인 그리어슨(Robert G. Grierson, 구례선)과 동지였던 구춘선(具春先)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정재면의 개종권유를 받아들였다.⁸⁾ 김약연과 정재면은 간민교육회와 간민회에도 중심적 인물로 참여하였다.⁹⁾

1913년 운동회에서 우승했던 창동학교(昌東學敎)의 설립자는 남인상(南仁相)이다. 남인상은 함남 안변 사람이며, 1905년 만주로 이주한 장로교 기독교인이다. 1919년 대한국민회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¹⁰⁾ 1914년 운동회의 총책임자는 김영학(金永學)이었다. 김영학은 함북 명천 출신으로, 1911년 북간도로 망명했고 간민회에도 참여하였다.¹¹⁾ 1917년 참가가 확인되는 청호학교(淸湖學校)의 교장은 강백규(姜伯奎)이다. 일본의 조사에 따르면 청호학교는 기독교계열 학교였고, 강백규는 1919년 조직된 대한국민회에 참여하였다.¹²⁾ 1917년 두도구(頭道溝)에서 열린 연합운동회에 참가했던 광성(光成)학교는 이동휘, 이동춘, 김립, 계봉우 등이 설립한 학교다. 1911년 연길현 국자가 소영촌에 건립되었다. 영신학교는 함북 회령 출신인 윤상철이 1909년 용정에 세운 광성의숙이 발전한 것이다. 설립에는 강봉우, 장석함, 윤명희 등이 설립에 참여한 기독교 학교였다. 교장으로 목사 박예현, 선교사 베이

7) 윤병석, 2008, 『북간도 한인(조선인)사회와 명동학교』, 『북간도지역 한인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6쪽.

8) 서대숙, 2008, 『간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 김약연』, 역사공간, 85~86쪽.

9) 최봉용, 2008, 『북간도 간민회의 조직과 활동 및 성격』, 『북간도지역 한인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朝鮮駐節憲兵隊司令部→조선총독(寺內正毅), 1913.2.25, 『朝憲機 第260號 墾民會 組織總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에 따르면 1913년 1월 22일 국자에서 열린 간민회조직총회에서 임시회장으로 정재면이 선출되었고 김약연은 중앙총회회장을 맡았다.

10) 國家報勳處, 2000,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第14卷, 274~275쪽.

11) 國家報勳處, 1991,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第9卷, 86~87쪽.

12) 강덕상, 1970, 『현대사자료』27, 141~157쪽;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 제3권 : 삼일운동사(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697~699쪽.

커(A. H. Baker, 박걸), 스콧(W. Scott, 서고도) 등이 거쳐 갔다.¹³⁾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몇 가지 공통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운동회 발기인, 총책임자, 참가 학교의 관련인 등 운동회를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들이 간민교육회나 간민회, 국민회에 참여했다는 점과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이다. 간민교육회는 1910년 3월 이동춘, 박찬익(朴贊翊), 윤해(尹海)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¹⁴⁾ 원래 1909년 이동춘, 박무림 등이 중심이 되어 ‘간민자치회’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우려한 중국 지방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지 못하였다. 자치회 설립을 위하여 길림대국이 요구한 것은 국적문제의 해결이었다. 자치회 설립을 요구하는 유지대표들이 귀화한다면 설립을 허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미 귀화해 있었던 이동춘, 박찬익, 윤해 등이 주도하여 설립된 것이 간민교육회였다. 1911년 10월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공화제인 중화민국이 탄생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힘입어 간민교육회는 이동휘, 이동춘, 정재면, 박찬익 등 대표 4인을 북경의 여원홍(黎元洪) 부총통에게 보내 북간도에 ‘간민자치회’를 결성하겠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원홍은 ‘자치’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하였고, 이로써 간민회가 성립될 수 있었다. 간민회 총회는 국자가에 총본부를 설치하고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에 지방총회를 두었고, 지방총회 산하에 지회를 건설하였다. 간민교육회와 간민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독교계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박찬익으로 대표되는 대종교인들이 일부 참여했다.¹⁵⁾ 이러한 인적 구성은 대한국민회까지 이어졌다. 대한국민회는 간민교육회와 간민회의 경험과 조직을 이어받아, 3·1 운동 이후에 설립된 조직이다. 대한국민회와 간민교육회/간민회는 조직의 목표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인적, 조직적 연결성을 가지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¹⁶⁾

13) 박주신, 2000,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303쪽, 317~320쪽.

14) 최봉용, 앞의 논문, 206~209쪽.

15) 최봉용, 앞의 논문, 216~217쪽, 224쪽.

16) 간민교육회와 간민회는 기본적으로 북간도 조선인의 자치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활동

간민교육회와 간민회는 조선인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이 단체가 조선인의 생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공조가 필수적이었다. 토지문제는 법률적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간민교육회와 간민회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 단체로 설립되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공조체제를 이용하면 조선인들을 통치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턱대고 자치권을 내 줄 수는 없었다. 중국은 ‘간민자치회’ 설립 요구를 ‘간민교육회’로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은 북간도의 조선인들을 ‘귀화입적’시키라는 것이었다.¹⁷⁾

당시 조선인들의 국적 문제는 중-일간의 중요한 외교현안이었다. 일본은 병합 이후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므로 북간도의 조선인들도 일본국적을 가지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통치권은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간도의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907년에 통감부파출소를 설치하였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에는 간도총영사관을 설치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조선인들을 귀화입적 시켜 일본의 침투를 막고, 조선인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고자 했다.¹⁸⁾ 간민교육회는 조선인의 귀화촉진운동을 펴는 한편 귀화수속도 맡아 처리했다.¹⁹⁾ 간민교육회원들은 “일본에 복종하는 것 보다 중국에 복종하는 것이 낫다”며 조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치발역복’, 즉 귀화를 권유했는데 일본의 정보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하였다.²⁰⁾

을 했다. 그러나 대한국민회는 3.1운동 이후에 고조된 독립운동의 열기 속에서 조직되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봉용, 앞의 논문, 278쪽.

17) 최봉용, 앞의 논문, 207쪽.

18) 1909년 제정된 중국(청) 국적법 『大清國籍條例』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적은 본국국적을 상실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들의 본국국적 이탈을 부인하였으므로 국적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간도 조선인의 국적에 관해서는 김춘선, 1999, 「1900~1920년대 북간도지역 전민제와 한인의 토지소유권문제」, 『역사문제연구』3 ; 유병호, 2005, 「북간도한인의 국적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교섭에 대한 연구-통감부파출소시기를 중심으로」, 『중앙사론』21 ; 권영준, 2003, 「근대 중국의 국적법과 조선인 귀화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5.

19) 권영준, 앞의 논문, 37쪽.

20) 吉田(간도헌병대장)→小村壽太郎(외무대신), 1911.6.26, 「憲機 第1234號 局子街教育會員ノ行

간민교육회에서 간민회로 이어진 친중적 자치운동은 조선인 사회 내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간민교육회와 간민회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신교육을 통하여 조선인을 일치단결 시키고자 했다.²¹⁾ 그러나 유럽계 인사들은 이러한 기독교, 신교육 운동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귀화입적을 권유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유럽들은 공교회(孔教會)를 설립하여 간민회의 신앙활동에 대항하고, 농무계(農務契)를 설립하여 간민회의 법적인 활동에 대한 제약에 나섰다. 농무계는 간민회가 강제적으로 호당 회비 30전을 징수하고 있는 점과 간민회 가입을 강요하고 호구조사를 강행하는 점 등을 들어 중국 지방 정부에 단속을 요구하였다.²²⁾ 이 문제는 농무계가 일본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간민회의 의혹제기로 한층 격화되어 두 단체 간의 반목은 해소되지 못하였고 결국 해산되었다.

1914년 간민회 해체 후 뚜렷한 조직활동은 나타나지 않지만 조선인 자치를 추구해 온 운동의 경험은 대한국민회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보통 국민회는 군사조직 뿐 아니라 행정조직으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된다.²³⁾ 북간도 대부분의 지역을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 각각 2개씩 총 10개의 지방회를 두었고, 그 아래 구역회, 지구회, 촌회를 설치하여 지회가 설치된 지역에서의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국민회는 1920년 8월 당시 10개의 지방회와 100개가 넘는 지회를 거느린 북간도 최대의 조선인단체였다.

간민교육회와 간민회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천주교, 대종교인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단체로, 종교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다.²⁴⁾ 이러한 사정은 운

動ニ關スル件」『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1), 1~2쪽.

21) 吉田(간도헌병대장)→小村壽太郎(외무대신), 위의 문서, 1~2쪽. 1911년 4월 30일 저녁 국자사에서 열린 간민교육회 모임에서 윤해는 “야소교를 믿지 않으면 일치 단결 할 수 없고, 신학문을 연구하지 않으면 발전 할 수 없다. 야소교와 신학문을 일체로 하여야 나중에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 손춘일, 2010, 「간도 조선인사회와 공교회」, 『간도와 한인 종교』,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50~251쪽.

23) 송우혜, 1986, 「북간도 대한국민회의 조직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1 ; 박환, 1991,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동회에도 반영되었다. 참가학교의 명칭이 비교적 자세히 남아있는 1917년 연합운동회의 경우를 보자. 1917년에는 용정촌과 두도구 두 곳으로 나뉘어서 연합운동회가 열렸다. 용정촌 운동회의 총책임자는 명동학교의 김약연이었다. 이 운동회에 참가한 학교는 명동학교, 신동학교, 지신학교, 흥동초등학교, 창동학교, 영동학교, 덕흥학교, 삼성학교, 광종학교, 협동학교, 화흥학교, 청호학교, 양성학교, 광동학교, 송동학교, 영동학교 이상 16개 학교였다.²⁵⁾ 이 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학교는 명동학교, 흥동학교, 창동학교, 덕흥학교, 청호학교, 양성학교, 광동학교이다. 일본 헌병대의 조사에 따르면 이 7개 학교 중에서 명동, 창동, 청호, 양성, 광동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 흥동과 덕흥학교는 천주교 학교로 드러난다.²⁶⁾

두도구에서 열린 연합운동회 참가 학교는 27개교. 이 중에서 23개 학교들은 제1사립소학교, 제2사립소학교 등 중국식 학제에 따른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학교 명칭이 중국 학제로 되어 있는 것은 1915년 체결된 ‘획일간민교육법’ 때문이다. 1915년 일본이 중국과 ‘21개조약’을 체결하고 간도 한국인보호를 구실로 만주 진출을 적극화하였다. 그러자 중국당국은 이주 한인들을 중국세력권 아래에 두고자 한인들에게 귀화를 강요하고 서둘러 동남로 관찰사서 도윤으로 하여금 이른바 ‘획일간민교육법’을 제정하여 한인교육을 중국 지방당국 관할 아래로 두고서 중국 학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위반학교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하였다. 당시 명동학교를 비롯하여 민족 학교들은 일제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중국 당국의 조치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비밀리에 중국 당국과 교섭하였다. 일본 측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역사, 지리 과목의 교수허용은 공식적으로 인허 받지 못하나 비밀리에 교수한다면 묵인해 준다는 공조관계를 유지하였다.²⁷⁾ 이에 따라 학교 명칭이 공식적으로 중국 학제를 따르게 되었다. 그

24) 최봉용, 앞의 논문, 210쪽.

25)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長谷川好道(朝鮮總督), 1917.7.3, 『朝憲機 第199號 朝鮮人經營私立學校聯合運動會ノ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6)

26) 강덕상, 앞의 책, 141~157쪽.

러나 실제로 지칭할 때는 기존에 불러 오던 명칭을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23개교의 학교명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일의 우송학교가 광성 학교라는 기록이 있다. 1917년 두도구 연합운동회 참가 학교 중 명칭을 알 수 있는 것은 학교명이 명시되어 있는 영신, 영실(永實), 숭신(崇信), 광신(光信) 학교와 광성학교. 5개 학교다. 이 중에서 영신, 영실, 광성학교는 기독교계이며 광신학교는 천주교계로 확인된다.²⁸⁾

간민교육회에서 간민회를 거쳐 대한국민회로 이어진 ‘민족적 자치주의’ 세력은 민족교육운동을 펼치는 한편 항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용정에서도 3·13운동이 격렬하게 타올랐는데, ‘민족적 자치주의’ 세력은 3·13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대한국민회를 창설하여 신속하게 무장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국민회는 북간도 전역에 지부를 설치하여 행정적 역할까지도 자임하고 나섰다. 이처럼 신속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1910년대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연합운동회도 그 활동 중 하나였다.

3. 연합운동회의 기능

1913년 6월 9일 단오날 아침.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30도가 넘게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는 일교차가 큰 계절이었다.²⁹⁾ 천여

27) 박주신, 앞의 책, 75쪽 ; 이명화, 2008, 앞의 논문, 165~166쪽.

28) 강덕상, 앞의 책, 141~157쪽 ; 광성학교는 이동휘, 이동춘, 김립, 계봉우 등이 설립한 학교다. 1911년 연길현 국자가 소영촌에 건립되었다. 영신학교는 함북 회령 출신인 윤상철이 1909년 용정에 세운 광성의숙이 발전한 것이다. 설립에는 강봉우, 장석함, 윤명희 등이 참여한 기독교 학교였다. 교장으로 목사 박예헌, 선교사 박걸(A. H. Baker), 서고도(W. Scott) 등이 거쳐갔다. 박주신, 앞의 책, 303쪽, 317~320쪽 ; 서정민, 2007, 『이동휘와 기독교』, 연세대학교출판부, 585쪽.

29) 연길의 6월 기후는 평균기온 17.8℃, 최고기온 37.2℃, 최저기온 3.9℃, 월평균상대습도 75%, 풍속 2.4m/s, 월강수량 88.8mm. 서울의 6월 기후와 비슷하지만 일교차가 훨씬 큰 날

명의 학생들이 용정촌(龍井村)에서 동남쪽으로 약 1리가량 떨어진 대교동(大 교洞)으로 모여들었다. 남학생 9백여 명, 여학생 2백여 명 남짓에 인솔교사 들까지 참여한 대인원이었다. 학생들은 옷을 맞추어 입고 구렁에 맞추어 일 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북간도 각지의 약 32개 조선인 학교의 학생들이었다. 명절날 아침부터 열린 행사에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용정 시내의 시민들도 구경을 하러 떠들썩하게 모여들었다. 구경꾼들은 어림잡아 1만 명이 었다.³⁰⁾ 당시 용정촌에 있는 일본영사관이 집계한 관할 구역 내 조선인 인 구는 약 113,711명.³¹⁾ 당시에는 조선인과 중국인 비율이 7 : 3 정도 되었으 니 용정촌 일본영사관 관할구역 내에는 중국인이 약 4만 8천 명 정도 더 있 었을 것이다. 따라서 용정촌 일본영사관 관할구역 내 인구 추산은 약 16만 명. 이 중에서 용정 시내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연결 현의 일부와 화룡현의 일부를 포함하는 용정 근처지역 인구 16만 명 중 1만 명이 단오절에 열리는 운동회를 구경하러 대교동으로 모였던 것이다.

운동회의 경기 종목은 포대공격, 계주, 이인삼각, 넓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등이었다. 운동회는 하루만에 끝나지 않고 이튿날 아침에 용정 시내로 장소 를 옮겨 계속되었다. 이튿날은 전날보다 더 많은 1만 5천여 명의 구경꾼이 모인 가운데 탈환경주(奪還競走), 기마탈모(騎馬脫帽), 군함경주(軍艦競走) 등의 종목이 치러졌다. 학교별 대항 경기였기 때문에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학 생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경기는 달아오르고 구경꾼들은 박수와 환호로 열렬히 응원하였다. 이들에 걸친 경기의 결과 남학교 우승은 와룡동

씨다.

(China Meteorological Data Sharing Service System, <http://cdc.cma.gov.cn/shishi/climate.jsp?stprovid=吉林&station=54292>)

30) 『북간도 한인학생』, 1913년 10월 11일, 『국민보』; 『북간도의 대운동회』, 1913년 6월 29일, 『권업신문』, 3면; 일본 헌병대 기록에도 1917년 용정촌에서 열린 연합운동회에 1만 2천여 명의 관람자가 운집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연합운동회에서 관람자 1만 명은 단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長谷川好道(朝鮮總督), 1917. 7.3, 『朝憲機 第199號 朝鮮人經營私立學校聯合運動會ノ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6)

31) 牛丸潤亮, 1927, 『最近間島事情』, 朝鮮及朝鮮人社, 125~6쪽.

(臥龍洞)의 창동학교(昌東學校), 여학교 우승은 명동촌(明東村)의 명동여학교(明東女學校)가 차지하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중국 관리는 학생들을 향하여 “인내와 모험하는 사상을 가지면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의존적인 마음을 버리고 독립 정신을 가지라”는 요지의 열띤 연설을 하고 우승학교에게 은으로 만든 상패를 수여했다. 운동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기를 마친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갖추어 용정 시내를 행진했다. 용정 시내의 조선인들은 거리로 나와서 행진하는 학생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다. 학생들이 지나가면 환영의 폭죽이 터졌다. 박수, 환호, 폭죽소리로 온 거리가 축제의 기운으로 넘실거렸다.³²⁾

이러한 대규모 연합운동회가 1912년에 시작되어 1915년과 1916년을 제외하고 1918년까지 매년 단오에 열렸다. 운동회가 열릴 때 마다 천 명이 넘는 학생들과 만 명이 넘는 구경꾼들로 술렁대고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단오가 되면 북간도의 조선인들은 연합운동회라는 축제를 벌였던 것이다.³³⁾

요시미 순야는 운동회를 근대국가의 통치술의 일부로 파악했다. 위로부터 아동(국민)의 신체를 규율, 훈련해 나가는 장치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효과를 위하여 학생들은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근대식으로 정열하고 2인 3각, 깃발 전달, 줄다리기, 군함전 등의 종목을 경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운동회가 마을축제로서 수용되었음을 지적한다. 운동회는 근대의 ‘대본’이 ‘연출’되어가는 과정과 사람들이 자라온 일상적 실천, 즉 ‘퍼포먼스’가 얽혀 서로 싸워나가면서도 접합해가는 지점에서 탄생해, 모순을 내포한 채 사회전략적 장으로 발달해 왔다고 보았다.³⁴⁾ 요시미 순야는 운동회의

32) 이상의 묘사는 다음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간도총영사대리(樞典三吉)→외무대신(牧野伸顯), 1913.9.11, 「機密 第36號 排日鮮人學校運動會取締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 「북간도 한인학생」, 1913년 10월 11일, 『국민보』; 「북간도의 대운동회」, 1913년 6월 29일, 『권업신문』, 3면

33) 이러한 운동회가 북간도에서만 열렸던 것은 아니다. 체육행사는 신체를 단련하고 근대적 규율을 함양하기 위한 도구로써 도입되어 1897년 조선의 영어학교에서 최초로 대운동회가 열렸다.(이동진, 2004, 앞의 논문, 187쪽.) 연해주나 미주 등에 있는 조선인사회에서도 운동회가 열렸고, 그 목적은 공동체적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2가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먼저 위에서부터 국민을 규율하고자 하는 근대 국가의 의도. 학생들은 운동회(체육활동)를 통하여 전통적 신체를 근대적 신체로 전환한다. 그리고 근대적 군대와 같은 규율을 갖춘 국민으로 훈련받는다. 물론 여기에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교육이 수반된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운동회를 마을의 축제로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의 의도이다. 아이들을 매개로 운동회에 모인 마을 사람들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환언하면 운동회에 참관하는 사람들도 국가의 의도에 포섭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사회에서 운동회의 주최자는 국가가 아니었으므로 운동회에 작용하는 국가의 의도는 주최자의 의도로 치환된다. 즉, 북간도에서 운동회의 의도는 ‘민족적 자치주의’세력의 의도로 치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운동회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는 학생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독립의식을 불어넣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운동회의 풍경은 오늘날 초등학교의 운동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들이 규율에 맞추어 정렬하고 구령에 따라 힘찬 함성을 내질렀다. 이러한 행렬은 군대식으로 규율되어 있었다.³⁵⁾ 실제로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열을 맞추어 행진하는 것은 군사훈련이며 일본에 대한 시위행동이라며 일본 영사관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³⁶⁾ 운동회장에는 만국기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만국기 속에 일장기는 없었다. 만국기는 열국이 병립하고 있는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의 위치를 재확인시키는 장치였다. 일장기를 제외시킨 것은 일본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1914년 국자가 부근에서 열린 운동회의 포대 공격 경기는 남군과 북군으로 나누어 치러졌다. 여기서 남군은 일본군, 북군은 조선군으로 삼아 북군이 통쾌하게 승리하는 장면을 연출했

34) 요시미 순야, 「국민의례로서의 운동회」, 『근대의 신체 운동회』, 논형, 2007

35) 간도총영사대리(堺典三吉)→외무대신(牧野伸顯), 1913.9.11, 「機密 第36號 排日鮮人學校運動會取締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 「북간도 한인학생」, 1913년 10월 11일, 『국민보』; 「북간도의 대운동회」, 1913년 6월 29일, 『권업신문』, 3면

36) 간도총영사대리(堺典三吉)→외무대신(牧野伸顯), 1913.8.20, 「政機密 第33號 排日鮮人學校聯合運動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 3~5쪽.

다.³⁷⁾ 연합운동회에서는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르기도 했다.³⁸⁾ 1910년대에 북간도는 만 여 명의 군중이 모여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운동회는 일본을 적대화 하고 그 대척점에 조선을 위치시킨 후 조선에 자신을 동일화하는 과정을 신체활동을 통하여 실현했다. 이러한 경험은 민족의식을 강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원래 운동회는 학교단위의 행사다. 학교와 그 주변 마을이 모이는 장이었던 것이다. 북간도에서도 물론 학교단위의 행사가 발견된다. 1913년 명동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열었다는 내용의 일본 헌병기록이 있다.³⁹⁾ 그런데 일본의 문서철에는 학교단위 운동회 기록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연합운동회에 대한 기록이 더 많다. 일본 영사관이 연합운동회를 더 문제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기획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연합운동회를 열고자 했을까? 그것은 이주민사회의 운동회였기 때문이다. 국내에 있었다면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지 않더라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사회는 다르다. 당시 북간도는 조선국경 밖에 있는 가장 큰 조선인 집거지였다. 이민의 역사도 길고, 이주 시기와 출신지도 다양했다. 중국에 귀화해서 치발역복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연합운동회는 조선인들의 대규모 축제의 장으로 전환됨으로써 동족의식을 확인하고 떠나온 곳을 재확인하게 했다. 이주민사회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또 운동회는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당시 북간도의 조선인 이주민 대부분은 조선 북부지역의 농민들이었고 생활이 낙후되어 있었다. 또한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관계로 인적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여 폐쇄적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연합운동회는 이런 조선인들의 상호친목과 소통을 이

37)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寺內正毅(朝鮮總督), 1914.6.13, 「朝憲機 第366號 間島周子街地方鮮人學校生徒運動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3), 2~3쪽.

38)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長谷川好道(朝鮮總督), 「朝憲機 第199號 朝鮮人經營私立學校聯合運動會ノ件」, 1917.7.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6)

39)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寺內正毅(朝鮮總督), 1913.10.8, 「朝憲機 第921號 排日學校運動會狀況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

끌어 내는 장이 될 수 있었다.⁴⁰⁾ 운동회에는 학생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참가했다. 참가하는 학교마다 인솔교사들이 함께 왔던 것이다. 학부모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운동회는 보통 아침 7시(1914년)에서 8시(1917년)에 시작된다. 당시의 교통사정으로 판단해 보건대 도보로 움직였을 것이다. 학교들은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 당일 아침에 도보로 이동해서 아침 7시에 운동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다.⁴¹⁾ 운동회에 참가하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운동회가 열리는 지역으로 하루나 이틀 전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하루 전에 운동회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해 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는 곳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머물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 많은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학생과 교사들 개개인의 교류는 물론이고 조직적 차원의 교류도 가능했을 것이다.

1917년의 사례를 보면 운동회가 끝나고 각 학교 대표자들이 모여 간도의 교육과 단합 문제를 두고 회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회의에서는 “1. 명동학교 건축비에 관한 문제. 작년 조선인 각 학교 연합운동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모았던 돈 270원은 명동학교 건축비로 기부한다, 2.간도청년 교육에 관한 문제. 간도 조선인교육의 확대 문제를 박정훈이 담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자가에 거주하는 방진성, 임병호 2명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3.친목회 조직에 관한 문제. 간도전체에 걸친 조선인의 친목회를 조직하여 청년교육의 확대를 도모한다.” 등의 상황을 협의, 결의하였다.⁴²⁾

또 한편으로 운동회는 축제의 장이었다. 아이들을 매개로 1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운동회장에 모여 화합을 다졌다. 단오절을 맞아 열리는 운동회는 별다른 오락이 없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구경거리였을 것이다. 운동회를

40) 김춘선, 1998, 앞의 논문, 166~167쪽.

41) 그 예로, 1917년 두도구에서 열린 연합운동회의 우송학교는 광성학교인데, 광성학교의 소재지는 국자가이다. 두도구에서 국자가까지는 30km 이상 떨어져 있다.

42)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長谷川好道(朝鮮總督), 앞의 문서, 5~7쪽.

마치고 학생들이 시가를 행진할 때 사람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즐거워했다.

이주자들은 타국에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결집의 필요성을 느낀다. 북간도에서 조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고, 그것이 ‘민족적 자치주의’세력의 간민교육회나 간민회의 활동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간도는 특수한 공간이었다. 타국 땅이지만 거주민의 70%이상이 조선인이었다.⁴³⁾ 따라서 중국지방정부로서도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 통치해야 할 대상이 중화민국의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이 강하게 결집한다면 자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었다.⁴⁴⁾ 그리고 결집의 중심점은 조선인이라는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학생들을 조선인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으고, 운동회라는 행사를 통하여 정체성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로의 수렴을 지향하는 일본에서의 운동회와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그 목표는 국가로의 수렴이 아니라 자치공간의 확대에 있었다. 이는

43) 牛丸潤亮, 『最近間島事情』, 朝鮮及朝鮮人社, 1927, 122쪽. 원문의 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年	조선인(명)	중국인(명)	계(명)
1912	163,000	49,000	212,000
1916	203,426	60,896	264,322
1918	253,961	72,602	326,563
1921	307,806	73,748	381,554
1922	323,806	70,698	394,504
1923	323,011	77,709	400,720
1924	329,391	82,730	412,121
1925 初	346,194	82,472	428,666
1925 末	356,016	86,349	442,365

44) ‘중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범위는 고대 이래로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만주는 청왕조의 발상지였지만 오랜 봉금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다. 이런 지역을 근대 중국의 일부로 상상하게 되는 것은 역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우에다 다카코는 봉천을 중심으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과정에 착목하였다.(우에다 다카코, 2010, 『‘만주’의 중국화 -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봉천지역 아이덴티티의 형성』,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주에서도 변방에 속했던 간도지역은 완전히 중국화된 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간도 통치를 둘러싸고 민족적 자치주의세력과 중국 지방정부가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그 지역의 통치권이 불안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한 민족적 지향이 귀화입적운동과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중국의 후원과 일본의 대응

운동회는 열리는 해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소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수십 개 학교, 1,000명에서 많으면 1,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운동회에 직접 참여했고, 용정처럼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구경꾼도 만여 명이나 모여들었다.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학교별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많은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아마 수개월 전부터 많은 실무진들이 모여 회의를 거듭하며 준비했을 것이다. 이 과정을 단편적으로나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록들도 있다. 일본 영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1913년 운동회의 발기인은 관찰사 서의 통역이며 ‘배일파’로 지역 유력자인 조선인 이동춘(李同春) 외 십수명, 실무진 70여 명이다. 운동회를 준비하는 인원만 해도 100명에 가까운 것이다. 여기에 연결 지부 6도구 상부국장, 상부순경국장 등 중국 관리들이 찬조했다고 한다.⁴⁵⁾ 중국 관리들도 운동회를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용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운동회의 비용은 주로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걷고 나머지는 기부로 충당되었다. 1917년의 기록에 따르면 학생들에게는 1인당 10전씩 걷었고, 기부금은 210원이 들어왔다고 한다.⁴⁶⁾ 두도구에서 열린 운동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계산해 보면 학생은 729명이므로 학생들에게 걷은 돈은 72.9원, 기

45) 간도총영사대리(榑與三吉)→외무대신(牧野伸顯), 1913.8.20, 「政機密 第33號 排日鮮人學校聯合運動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 2~3쪽.

46)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長谷川好道(朝鮮總督), 1917.7.10, 「朝憲機 第206號 朝鮮人經營私立學校聯合運動會ノ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6)

부금은 210원, 총 282.9원 가량 된다. 1918년에 열린 운동회는 학생들에게 15전씩 걸었고, 기부금이 600여 원이었다고 한다.⁴⁷⁾ 이를 계산해 보면 학생들에게 약 208원을 걷고 기부금을 600여 원 받았으므로 8~900여 원이 사 용되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은 조선인 유지와 중국 관민으로부터 나왔다.⁴⁸⁾

운동회 당일에 중국 관리들이 임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했다. 1913년 운동회에는 연길부(延吉府) 지부(知府)인 관운중, 순경국장(巡警局長) 초 도영, 용정상부국장이 참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⁹⁾ 1914년 국자가에서 열린 연합운동회에는 교육과장이 참석하였고 오후 5시경에는 동남로관찰사 도 빈(陶彬)이 방문했다.⁵⁰⁾ 1917년 용정과 두도구 근처에서 열린 운동회에는 중국 관립학교 학생들이 대오를 갖추어 참관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⁵¹⁾ 1918년에는 연길도윤공서(延吉道尹公署)에서 도윤을 대신하여 공서 직원 1명, 연길현의 권학소장(勸學所長), 연길도립중학교장 및 교사 2명이 참석했다.⁵²⁾ 관찰사 도빈이 직접 방문하거나 연길부의 총책임자인 지부, 교육문제를 담당 하는 권학소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정부 차 원에서도 연합운동회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⁵³⁾

47)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長谷川好道(朝鮮總督), 1918.7.4, 『朝憲機 第412號 間島鮮人經營支那官許私立學校聯合運動會開催ノ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7)

48) 1920년 자료에 따르면 쌀 1두가 3.75원, 무 1관은 5전이였다.(강덕상, 『현대사자료』28, 1972, 352쪽)

49) 『북간도의 대운동회』, 1913.6.29, 『연업신문』, 3면.

50)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寺內正毅(朝鮮總督), 1914.6.13, 『朝憲機 第366號 間島局子街地方鮮人學校生徒運動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3)

51)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長谷川好道(朝鮮總督), 1917.7.3, 『朝憲機 第199號 朝鮮人經營私立學校聯合運動會ノ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6) ;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長谷川好道(朝鮮總督), 1917.7.10, 『朝憲機 第206號 朝鮮人經營私立學校聯合運動會ノ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6)

52)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長谷川好道(朝鮮總督), 1918.7.4, 『朝憲機 第414號 間島鮮人經營支那官許私立學校聯合運動會開催ノ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7), 2쪽

53) 중화민국 성립 후 1913년 2월 길림동남로병비도공서(吉林東南路兵備道公署)가 길림동남로관찰사공서(吉林東南路觀察使公署)로 바뀌고 연길, 화룡, 훈춘, 왕칭, 돈화, 역목, 영안, 동녕 8개 현을 관할하게 되었다가 1914년 연길도윤공서(延吉道尹公署)로 개칭되었다.(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집필소조, 1988,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중국의 우리민족』, 도서출판 한울, 52쪽)

중국 지방정부가 연합운동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도 했던 이유는 연합운동회가 통치에 순기능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연합운동회를 주도한 것은 민족적 자치주의세력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치권 확대를 지방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내고자 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구의 70%가 넘는 조선인들에게 자치권을 준다는 것은 통치를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치권 문제를 매개로 민족적 자치주의세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조선인들 사이에 통치력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간민회의 귀화입적운동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북간도에 이렇다 할 세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간도협약」의 결과 용정,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에 영사관을 설치했지만 이렇다 할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북간도의 일본인 거류민은 주로 이발직, 재봉직, 세탁업, 양복점, 잡화점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관리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도였다. 기록에 따르면 1918년 당시 북간도 거류 일본인은 289호, 718명에 불과했다.⁵⁴⁾ 이런 상황에서는 조선인들이 민족적 공동체의 식으로 강하게 결집될수록 그 속으로 파고들기 어려웠다.

그래서 재간도일본영사관과 조선주찰헌병대는 연합운동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연합운동회가 조선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합운동회에서 고조된 민족감정이 일본에 대한 적대 행위로 전환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했다. 간도총영사대리는 운동회 당일 학생들이 시내를 행진하여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켰으며, 그들이 영사관 근처를 행진하면서 시위적인 감정을 풍겼다고 외무대신에게 보고했다.⁵⁵⁾ “학생들이 용정촌을 지날 때에 우리 사람 상인들은 집마다 예포를 놓으면서 환영하였다”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전한 『권업신문』의 기사와 대조해서 보면, 운동회가 끝난 후 학생들의 시가행진에 대한 일본 영사관과 조선인들의 상반된 시각을 느낄

54) 東洋拓植株式會社京城支店, 『間島事情』, 1918, 110~111쪽.

55) 간도총영사대리(堺典三吉)→외무대신(牧野伸顯), 1913.8.20, 『政機密 第33號 排日鮮人學校聯合運動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

수 있다.⁵⁶⁾

그러나 어디까지나 운동회는 교육적 행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 지방 당국에서도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회 자체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다. 재간도일본영사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운동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태극기를 게양하는 행위에 대하여 외교적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간도총영사 대리는 1913년 관찰사를 찾아가 6월의 운동회에서 “한국 만세”를 제창한 사실을 지적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관찰사는 유감을 표시하며 친교국을 무시하는 이같은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외교적 언사에 불과했다. 14년, 17년 운동회에서는 여전히 애국가가 제창되고 태극기가 흔들렸다. 이에 대하여 간도총영사대리는 중국 관리들이 엄중한 단속을 약속 했음에도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아 운동회에서 ‘배일적’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불평했다.⁵⁸⁾ 일본의 지속적 항의 때문인지 1918년 운동회에서는 일본이 ‘배일적’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이 없었음에도 운동회에 대한 일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주찰헌병대는 “(운동회장에서-역자) 특별한 배일불온운동 등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합한 결과 심리적으로 흥분된 정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결국 연합운동회에 대한 일본 측 불만의 정체는 운동회를 통하여 모여든 조선인들의 정서적 교감 그 자체였다. 민족의 상징이 운동회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문제였지만, 설령 그것이 없더라도 운동회는 조선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천장절을 맞아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하는 운동회를 준비했던 것이다.⁵⁹⁾ 그러나 이 시도는 중국 측과 조

56) 『북간도의 대운동회』, 1913.6.29, 『권업신문』, 3면.

57) 간도총영사대리(堺典三吉)→외무대신(牧野伸顯), 1913.9.11, 『機密 第36號 排日鮮人學校運動會取締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2)

58) 간도총영사대리(堺典三吉)→외무대신(加藤高明), 1914.6.4, 『機密 第28號 墾地鮮人各學校春季運動會狀況報告件ノ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3), 2쪽.

59) 천장절(天長節)은 천황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이다. 천황이 바뀔 때 마다 천장절도 바뀐다. 1915년 당시의 천황은 다이쇼(大正)천황으로 그의 생일은 8월 31일이었다.

선인 측 양쪽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중국 관립학교들은 운동회 당일날 모두 소풍을 가는 방식으로 조선인 학생들의 천장절기념 운동회 참관을 지지했다. 관립학교에 다니는 조선인 학생 겨우 20명 정도만 참관을 하러 갔을 뿐이었다. 조선인 학교들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었다.⁶⁰⁾ 일본의 대응책은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 영사관은 1916년에 가서야 훈춘을 시작으로 조선인사회에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선인거류민회의 조직을 시도하였으나 초기에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설립논의부터 규칙작성, 자금 조달, 회장 임명 등 전적인 과정이 간도총영사관에 의하여 추진되었다.⁶¹⁾ 당시의 일본은 실질적으로 조선인 사회에 침투할 수 있는 조직도, 역량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간도에 아직 일본이 충분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1910년대의 조건 속에서 북간도의 민족적 자치주의 세력의 활동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강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종교 및 민족교육운동을 펼치는 한편 간민교육회와 간민회를 통하여 조선인들의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방법은 중국 지방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인들을 민족적으로 결집시키는 것이었다. 연합운동회는 바로 그런 의도로 기획되었다. 운동회는 참가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모여든 학생들을 맞이하는 거주민들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동질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사였다.

중국 지방정부는 간민교육회와 간민회를 허가해 주고 조선인들을 귀화입적 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통치의 효율을 위하여 민족적 자치주의 세력의 운동을 적절히 활용했다. 연합운동회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들이 민

60)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寺內正毅(朝鮮總督), 1915.11.11, 『朝憲機 第414號 間島鮮人經營支那官許私立學校聯合運動會開催ノ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5), 2~3쪽.

61) 김태국,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48쪽.

족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결집하는 것은 중국에 반기를 들거나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로울 것이 없었다. 오히려 지방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적 자치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운동회였고 그들과의 매개를 통하여 통치력을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운동회를 후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영사관의 입장은 달랐다. 조선인들의 강한 민족지향성은 곧 반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인들이 중국과 밀착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민족적으로 결집하면 할수록, 중국과 밀착하면 할수록 북간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연합운동회에 대해서도 우려스럽게 지켜보면서, 최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입장을 취했다.

북간도 조선인 사회의 연합운동회는 191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북간도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3·13운동을 일으켰다. 달아오른 민족운동의 열기를 타고 민족적 자치주의 세력도 무장독립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19년을 기점으로 북간도의 정치지형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중국 지방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북간도 조선인 사회를 주도하던 민족적 자치주의 세력과 상대적으로 약했던 일본이라는 기존의 구도는 1920년 일본군의 ‘간도출병’으로 극적으로 변화했다. 2만이 넘는 군인들이 북간도로 들어와 ‘불령선인’을 소탕한다며 조선인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비인간적인 학살을 자행하는 극단적인 힘의 역전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 사회는 회복할 수 없는 제노사이드의 트라우마를 겪으며 균열해 갔다. 일본군 주력부대가 철명한 후에도 ‘간도파견대’가 북간도에 주둔하게 되었다. 1920년대의 북간도의 일본 세력은 영사관 주재원만 있고 별다른 무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1910년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1920년대 북간도의 정치 지형도 달라졌다. ‘민족 자치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대규모 연합운동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참고문헌

- 권영준, 2003, 「근대 중국의 국적법과 조선인 귀화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5.
- 김춘선, 1998, 「‘북간도’지역 한인사회의 형성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 「1900~1920년대 북간도지역 전민제와 한인의 토지소유권문제」 『역사문제연구』3.
- 김태국, 1996, 「중국에서의 조선족 역사연구」 『동북아연구』vol.2 no.1.
- _____,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 제3권 : 삼일운동사(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박주신, 2000,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 박 환, 1991,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 서대숙, 2008, 『간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 김약연』, 역사공간.
- 서정민, 2007, 『이동휘와 기독교』, 연세대학교출판부.
-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 손춘일, 2008, 「중국 조선족 민족과정과 간민회」 『북간도 지역 한인 민족운동 : 명동학교 100주년 기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_____, 2010, 「간도 조선인사회와 공교회」 『간도와 한인 종교』,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 송우혜, 1986, 「북간도 대한민국회의 조직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1.
- 연변민족교육연구소교육사연구실, 1989, 『연변조선족 교육사』, 논장.
-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집필소조, 1988,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 중국의 우리민족』, 도서출판 한울.
- 요시미 순야 외 5인, 2007, 『근대의 신체 운동회』, 논형(1999, 『運動會と日本近代』, 青弓社).
- 우에다 다카코, 2010, 「‘만주’의 중국화 -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봉천지역 아이덴티티의 형성」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 동북아역사재단.
- 牛丸潤亮, 1927, 『最近間島事情』, 朝鮮及朝鮮人社.
- 유병호, 2005, 「북간도한인의 국적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교섭에 대한 연구 - 통감부파출소시기를 중심으로」 『중앙사론』21.
- 윤병석, 1990, 『獨立軍史 : 鳳梧洞靑山里的 獨立戰爭』, 지식산업사.
- _____, 2003,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 _____, 2008, 「북간도 한인(조선인)사회와 명동학교」 『북간도지역 한인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동진, 2004, 「민족과 국민 사이 : 1940년의 체육행사에서 나타나는 만주국, 조선인, 공동체」 『만주연구』1.
- _____, 2006, 「표상으로서의 스포츠 : ‘朝滿對抗競技大會’를 사례로」 『만주연구』4.
- 이명화, 2008, 「항일독립운동사상에서의 명동학교의 위상」 『북간도지역 한인 민족 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채영국, 2006, 「연변지역 독립운동기지와 1920년대 한인사회의 변천」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 최봉용, 2008, 「북간도 간민회의 조직과 활동 및 성격」 『북간도지역 한인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Abstract ■

The Joint Sports Day of Korean Schools of North Gando in the 1910s

Jeong, Yeh - Ji

This article is aimed at analysing the joint Sports day of Korean schools held in North Gando in the 1910s to grasp political conditions amid Korean who lived in that region and their political goals more deeply. The sponsoring body of the joint Sports day, sometimes gathered more than 10,000 people, was those who could be called “*national autonomists*.”

National autonomists were strongly against imperial Japan based on their national identity as a Korean and at the same time, constantly made an effort to receive autonomy of North Gando from China. Through the joint Sports day, Korean could have the crucial opportunity to share their identity as a Korean, which led national autonomists to hold hegemony over a Korean community of North Gando. They maintained a close association with the Chinese local authority as well.

The Chinese local authority took a supportive stance on the joint Sports day, revealing an anti-Japanese character, because the authority thought that this event may benefit the authority’s control over North Gando. That is to say that national autonomists were willing to become naturalized in China for the sake of their autonomy, which would lead to the stability of the authority’s ruling in that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consulate at Gando carefully watched the joint Sports day as one of dangerous anti-Japanese movements. When it comes to the Japan’s influence in the region of Gando,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Chinese local authority must clash with

Japan's interest. However, the consulate could not take any action to change the situation until Japanese army's invasion of Gando and the massacre of Korean people in 1920.

In conclusion, the joint Sports day of Koran schools could be held under the balance of power among Korean national autonomist who strived to obtain autonomy of North Gando, the Chinese local authority which attempted to enhance their ruling to that region by supporting Korean autonomist, and the Japanese consulate which did not have enough power to block anti-Japanese activities, such as the Korean joint Sports day.